

‘아동학대’ 육아도우미 불기소 피해아동 부모 “구청 실수 때문”

증거 불충분…MRI 결과 포함

동구, 조사서 잘못 기록 시인

“검찰 판단 영향…재정 신청”

광주의 한 자치구에 소속된 육아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구청이 조사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조사서 내용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잘못된 조사서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7일 동구 위탁기관에 소속된 4년 경력의 육아돌보미 A씨(63·여)가 생후 8개월 여아를 돌보던 중 학대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아이를 거칠게 내동댕이치거나 굴렸다. 피해아동의 가정집에 파견된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집에 설치한 홈캠(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확인한 부모는 이튿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동구는 사건 이후 부모와 A씨 등 3명을 자체 조사해 각자의 진술을 듣고 아동학대 사례결정위를 거쳐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가 많은 남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어린 여아를 처음 돌보면서 남자 아이들을 다루듯 거칠게 행동했다”며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이들의 진술을 종합한 조사서 등을 경찰에 전달,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그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부모 측은 항고했지만 지난 10일 기각 통보를 받았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동구가 잘못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실제 피해아동은 MRI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동구의 조사서에는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혐의를 받은 A씨는 자진 퇴사했다. 동구는 사건 직후 A씨에 대

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A씨가 1년 반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아동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고 구청의 의견을 조사서와 함께 경찰에 전달했다”며 “‘병원에서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피해아동 부모의 진술과 ‘MRI 검사 결과 이상 없다더라’는 A씨의 진술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자진 퇴사했으며 1년 반동안 전국 어디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했다”며 “다만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가 행정처분이나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주고법에 재정을 신청키로 했다.

부모는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MRI같은 정밀 검사를 받게 할 수 없었다. 의사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만 확인했을 뿐 정식 검사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다”며 “허위사실이 반영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광주·전남 5~30mm 단비…황사 영향 주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에 최대 30mm의 단비가 내리겠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23일 낮 12시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m이다. 전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다만, 이날 이후 이번 주 비 소식은 없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6도, 최고기

온 12~15도)보다 높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23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24일 기온은 전날보다 5도 가량 더 낮아질 전망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중국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음주운전 현직 경찰, 주차 차량 들이받아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달미를 잡혔다.

화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화순경찰 소속 40대 남성

A경위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혈중알코올 0.111%(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화순군 화순읍 한 편도 1차선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화순=이종백 기자

경찰, 사건 수사 무마 혐의 양부남 법률위원장 압수수색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총 2억8,000만원이다. 양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임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 신고도 완료했다. 현금만 한 톨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 도심에 흐르는 광주천에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던 주암댐 물이 긴 가뭄으로 끊기면서 광주천이 말라 물의 용존산소량이 크게 줄어들자 22일 오전 세월교 아래에 어른 팔뚝보다 굵은 잉어들 이 배를 뒤집고 죽어 있다. /김태규 기자

환경단체 “승촌보 해체·영산강 수질 개선 대책을”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빛고를하천네트워크 등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물의 양과 질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가 뒷집을 지고 있어 영산강 물로 농사지는 쌀

에서 녹조 독성이 발견됐다”며 “정부는 영산강 수질 개선 대책을 실행하고,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유역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제출한 물관리 계획의 부합 여부, 유역 내 물 이동, 물 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린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 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품질보증

D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